

금주
거룩한 신심이여, 수행의 으뜸이고
착한 마음 길러내는 공덕의 어머니네,
한 타래 의심 줄기, 애육의 고나뭇을
뿌리째 뽑아주고 열반길 열어주네.
- 화엄경 현수품 -

현대불교

통사하는 불교 신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삼백구 삼백구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 노산신선선원 주거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낙동강 따라 구도순례

낙동강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대불청 부산지구, 회장 황국근)가 '낙동강 따라 구도 도보순례'를 계획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게다가 단순히 맑은 물을 지켜내겠다는 환경운동을 넘어 청년들의 구도심 발전과 친체의 높에 빠진 청년불자들의 조직 재건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도보순례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진다.

대불청 부산지구는 다음 달 31일 부산불교회관에서 입재식을 갖고 4월 1일부터 내년 부처님 오신날 전일까지 강원도 태백 황지에서 을숙도까지의 520km를 도보로 순례하게 된다. 매주 첫째 일요일마다 20여명의 회원이 40km를 걷는 방식으로 13차례의 도보행진을 펼치게 되며 황지못에서 장성 와룡면 안동 왜관 대구 위천 현동 남지 삼랑진 구포 등의 지방도와 국도를 걷어 내년 부처님 오신날 전야에 을숙도에 도착해 전야 행사를 갖고 회향하는 대장정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해 불교의 생명관, 자연과 환경, 낙동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회별로 2명씩의 회원들을 동행시켜 조직을 재건하고 청년불자를 환경운동의 주제로 우뚝 서게 하겠다는 부산지구의 도보순례 계획은 듣기만 해도 귀가 솔깃하다. 또한 이번 도보순례가 부산지구 차원의 일회성 행사



천미희 <부산 주재기자>

방생문화 바뀐다

물고기 놓아주기식 '이젠 그만' 생태-인권-생명 연계 행사로

조계종 '방생자료집' 배포

'산 것을 놓아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한다'는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생행사가 신형의 새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생명나눔실천회 실천불교승가회 등은 방생의 본 뜻을 되살려 억압과 질곡에 빠져있는 온갖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 방생의 영역을 확장하여 생태, 인권, 나눔, 사행수, 위안부, 장기수, 장기기증, 헌혈 등을 방생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생 방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물고기 놓아주기 위주의 방생 행사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동안의 방생은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풀어주면 복을 받는다는 행사로 인식돼 왔으며, 환경과 사회 위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명직은) 20일 새로운 방생법을 제시하는 '환경 인권 생명 방생 프로그램 자료집'을 발간, 사찰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문의 02-720-7064) 포교원은 160쪽 분량의 '방생 프로그램 자료집'을 통해 환경·인권·생명 등 3개 주제로 방생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방생과 관련한 경전 자료도 함께 실어 법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환경방생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했다. 1단계에서는 방생지 주변의 산과 강, 바다 기행과 체험 행사를 통해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 이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수중 생태계 보존과 생명유지를 위한 생물순환과 방생 후 영양 등의 전문지식을 인지한 후 방생에 참여하

도록 하고 있다. 3단계 방생 후에는 환경정화, 이웃돕기, 헌혈 등의 회향행사로 결집하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권방생은 기존의 수중생물에 국한한 방생 대상을 인간에게까지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방생형태. 대상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양심수 사형수들이 대표적이다. 사형수 방생의 경우, 방생지를 고도로 선정하여 사형제 폐지 발원문 낭독, 불살생과 사형제에 대한 법문,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류방생의 순으로 진행된다.

생명방생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함께 체험하는 이점이 있다. 장기기증, 헌혈법도 등도 실천 방법 중 하나이다.

포교연구실 김관태과장은 "방생의 개념과 실천은 환경과 인권, 생명을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돌아온 성보 12년 전 도남당에 어거지기를 떠돌다 이제야 재자를 찾게 된 지장보살좌상, 관음보살좌상, 금동보살좌상(높이 25-35cm). 지난 7년 무량사 5층석탑 탑신에서 발견돼 중남도 유형문화재 100호로 지정했다. (관련기사 23면)

"한라산 케이블카 위원회 구성 검토"
환경부, 조계종에 회신

환경부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의 철회를 요청하는 조계종의 공문에 대해 19일 회신을 보내 '케이블카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시민단체·학계 관계전문가 환경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자연공원과 전성립 사무관은 "위원회는 한라산을 비롯한 공인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공인위원회의 심의, 환경부 최종결정의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승인 여부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97년부터 현대불교는 불교대머여행, 불교문화체험학교, 구산선문 합선기행을 개최하여 열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문화관광부가 정한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차(茶), 꽃(花), 도자기 등을 주제로 한 지역문화 축제와 연계한 '지역불교문화기행'을 엮습니다. 지역의 불교유적을 답사하며 신심을 키우고 지역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3월: 남도 동백꽃에 문헌 산사- 대문사, 미황사, 백련사(무박2일)
- 4월: 영취산 전달래 맞이 순례- 흥국사, 송광사, 선암사(무박2일)
- 5월: 차(茶)문화축제 기행- 화계 차축제 현장 관람, 장계사, 칠불암, 다솔사(무박2일)
- 6월: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고성 통일전망대, 건봉사, 신홍사, 낙산사(무박2일)
- 8월: 신라 불교 문화의 현장을 찾아서- 김은사지, 기림사, 불국사, 석굴암(무박2일)
- 9월: 무안 연지(蓮池)를 찾아서- 무안 방죽, 내장사, 백양사(무박2일)
- 10월: 대둔산 축제 현장으로- 대둔산 축제 관람, 봉서사, 완주 송광사, 위봉사(1일)
- 11월: 백제불교를 찾아서- 부소산성, 정림사지, 관촉사, 고란사, 개태사(1일)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3월 지역불교문화기행은 24-25일 개최되며 자세한 안내는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화여행 이글스투어

장-군-죽-비

○3월 2일은 부처님 출가하신 날, '나'라는 '아집의 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곧 출가. (8면)

○日 역사 왜곡,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조금씩 가라앉는 일본열도, 물귀신이 되어 앙심도 가라앉히는가. (8면)

○내년 대선 앞두고 정치인들 불교계에 추파, 사문은 인연(人天)의 스승, 왕에게도 절하지 않는 전통을 기억하십시오. (9면)

○도를 김용옥을 향한 비판 불뿔 터진다. '노자'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니 노자가 '노'하지. (15면)

3·1절 온겨레 손잡기 행진

불교 등 7개 종교 '화해·평화의 날' 선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7개 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 손잡기운동본부' (상임공동본부장 정대선) 외 6인은 31절 82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에서 '2001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손잡기 운동' 행사를 연다.

'겨레에게 새 희망을'이란 주제로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총단협의회 회장 정대선님의 대회사와 화해와 평화의 날 선언, 정소년 평화요원 21세기 행동선언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 고 이수현씨와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에 대한 화해와 평화의 날 시상식도 갖는다.

운동본부측은 화해와 평화의 날 선언문을 통해 "정치권은 여야를 뛰어 넘어 겨레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의 정치를 열어 가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겨레의 화합과 21세기 도약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7개 종단연합 풍물패의 길놀이와 전통문화공연 등 식전행사와 본행사에 이어 5천 여명의 참가자들이 대한문까지 '희망의 손잡기 행진'을 벌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비지정 문화재 절취·은닉자 2년이상 징역 문화재법 국회상정

문화재청도범들의 집중 표적이 됐던 비지정문화재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재보호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이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취득, 운반뿐 아니라 양도 및 양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에서 요구한 '공소시효 연장'과 '보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은

법무부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관련기사 3면)

개정법률안에는 이밖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이를 등록해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지도 조인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되기 전 훼손과 도난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비지정문화재로 등록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관련 부처의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포, 시행된다.

권정진 기자 (gny@buddhapia.com)

一心佛院
각종 불사/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鑲단, 璽, 단정, 단정
02-725-2030/725-2040

수익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길! 어떤 수의로 모실까 고민하십니까?
기독교 소일수익에서 전통 우리삼베로 만든 수익!

남 20종: 도포, 두마귀, 저고리, 속저고리, 바지, 속바지, 어불, 요, 장례, 도포미, 덧님, 허대미, 연포, 악수, 오상, 휘장, 버선, 베개, 턱받이, 옛베

여 19종: 편삼, 저고리, 속저고리, 치마, 속치마, 바지, 속바지, 어불, 요, 장례, 편삼미, 연포, 악수, 오상, 꽃길, 버선, 베개, 턱받이, 옛베

○양동포 주류생산 ○소일수의 복상품
○보성포 주류생산 ○소일수의 복품
○소일수의 상품

대표전화: 02-736-0388~9
기독교: 054-434-3478
주소: 김천시 아포읍 송천 4리

상복일제서비스